

보도자료

브라더, 나만의 커스텀 굿즈를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의류출력 스튜디오' 개장

- 커스텀 티셔츠, 에코백, 모자, 신발, 액세서리 등 나만의 굿즈를 만들어보고 싶은 소비자 누구나 이용 가능
- 패션, 디자인 비즈니스에 몸담고 있는 디자이너, 부티크, 미대생 등의 개인, 기업 고객들이 커스텀 디자인 제품을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데도 활용
- 가먼트(의류) 프린터 기반의 창업을 고려하는 고객에게 창업 상담부터 GTX 장비 시연, 창업 전 시장성 판단을 위한 소규모 테스트까지 토탈 서비스 제공
- 10 월 말까지 두 달 간 사전 방문 예약 시, 본사 전담 엔지니어가 직접 장비 데모 시연 및 비즈니스 상담 진행

2019 년 8 월 26 일, 서울 - 세계적인 프린터/복합기 전문 기업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주)(www.brother-korea.com, 이하 브라더)는 오늘, 마포구 서교동 홍대 앞에 가먼트(의류) 프린터를 직접 시연해볼 수 있는 '브라더 디지털 의류출력 스튜디오'를 개장했다고 밝혔다.

브라더는 사용자 스스로 디자인한 그림이나 문양을 잉크젯 방식으로 옷감에 직접 인쇄할 수 있는 DTG(Direct to Garment) 방식의 '디지털 나염 프린터'인 GTX 를 선보이며 의류 프린터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왔다. 이에 브라더는 커스텀 굿즈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트렌드에 민감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앞에 시연 센터를 마련하게 되었다.

'브라더 디지털 의류출력 스튜디오'는 커스텀 티셔츠, 에코백, 모자, 신발, 액세서리 등 나만의 굿즈를 만들어보고 싶은 소비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직접 디자인한 파일을 가져오면 즉석에서 커스텀 굿즈를 제작할 수 있고, 별도의 디자인 파일이 없어도 스튜디오에 마련된 디자인 풀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골라 바로 제작이 가능하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커스텀 신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GTX 는 형태가 까다롭고 다양한 재질의 신발에도 또렷한 화질과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해 완성도 높고 개성 넘치는 나만의 신발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브라더 디지털 의류출력 스튜디오'는 패션, 디자인 비즈니스에 몸담고 있는 디자이너, 부티크, 미대생 등의 개인, 기업 고객들이 커스텀 디자인 제품을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가먼트(의류) 프린터 기반의 창업을 고려하는 고객에게는 창업 상담부터 GTX 장비 시연, 창업 전 시장성 판단을 위한 소규모 테스트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브라더는 스튜디오 개장을 기념해 8 월 22 일(목), 기존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GTX 에 대한 설명과 데모 시연,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 소개하는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었다. 또한, 10 월 말까지

두 달 간 사전 방문 예약 시, 본사 전담 엔지니어가 직접 장비 데모 시연 및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브라더의 가먼트(의류) 프린터인 'GTX'는 차세대 프린thead를 장착하여 1 분 40 초 만에 '나만의 특별한 옷'을 제작할 수 있다. CMYK 외에 4 채널 화이트 잉크 헤드를 지원하여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컬러를 구현할 수 있고, 특히, 자체 개발한 최첨단 이노벨라 텍스타일(Innobella Textile)은 색 재현 공간을 확장하고 선명도가 매우 우수하다. 이 '수용성' 잉크는 OEKO-TEX® Eco-Passport 인증을 획득했으며, AATCC 세정 테스트에서 4.0 이상을 받아 내구성 및 세탁 후 외관이나 색상이 변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 인증받았다.

섬유 원단 위에 전사지가 얹히고 그 위에 고온·고압이 가해져 전사지에 출력된 이미지가 섬유 원단 속에 침투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전사 공정과 달리, 디지털 방식의 이 프린터는 매우 고온 입자인 PL의 잉크젯 방울을 의류 표면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으로 통기성이 우수하고 시간이 흘러도 이미지에 큰 변형이 없다. 가먼트 프린터로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커스텀 굿즈가 바로 반팔 프린팅 티셔츠인데, 'GTX'는 티셔츠 인쇄 외에도 숄기, 지퍼, 주머니 등 다양한 표면에 선명한 인쇄가 가능하고, 형태가 까다로운 신발도 완성도 있게 제작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https://www.brother-korea.com/ko-kr/contents/gtx>)를 참고하면 된다.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주) 최정규 프린팅 사업부 본부장은 "브라더 디지털 의류출력 스튜디오'는 국내 섬유 직접 인쇄 사업에 기여하고, 수요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라며 "섬유에 직접 인쇄하는 디지털 의류(DTG, Direct to Garment) 프린터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및 개성을 표현하려는 커스텀 니즈가 부흥하는 시대적 요구에 정확히 부합되는 제품이다. 브라더 GTX는 무재고 소자본 창업의 기반으로 다품종 소량 인쇄의 준비 작업 시간 및 인력 개입 공정을 최소화할 수 있어 물류비,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생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흰색 등의 바탕색 처리 시에 경쟁력 있는 원가로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문 사양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미래시장에 특화된 인쇄 방식으로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다"라고 말했다.

제품 문의 및 방문 사전 예약: 브라더 B2B 상담센터 1670-4368

브라더 디지털 의류출력 스튜디오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5길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00-2 2층)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 3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브라더 공업 소개 (Brother Industries Ltd.)

1908 년 일본에서 재봉틀 수리업으로 시작한 브라더 공업은 1932 년 가정용 재봉틀을 개발하여 1934 년에 정식 회사로 설립되었다. 브라더는 1961 년 휴대용 타자기 개발, 1971 년 고속 도트 프린터 개발 등을 거치면서 프린터 중심의 사무용 기기 전문업체로 변신했다. 이후 팩시밀리, 프린터, 복합기 등을 선보이면서 프린터/복합기 전문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여 나갔으며, 뛰어난 내구성과 운영비용 절감에 탁월한 소형 프린터 및 복합기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세계적인 프린터/복합기 전문기업으로서 입지를 구축했다. 2017 년 현재, 전 세계 44 개국에 52 개 지사들이 진출해 있는 브라더는 프린터 및 복합기 관련 핵심기술을 직접 개발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고유의 전략을 바탕으로 유럽 및 미국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주) 소개 (Brother International Korea Co., Ltd.)

브라더 그룹의 한국법인인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주)는 2009년 10월에 설립되어 봉은사로(삼성동)에 위치해 있으며, 44개국의 해외 지사들과 나란히 브라더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주)는 2015년 6월 레이저 프린터, 복합기(MFC), 팩스 및 라벨 프린터의 판매 및 서비스에 대한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 인증은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주)가 한국 시장에서 경영활동을 해나가는 기업으로서 국제적인 수준의 환경경영을 기업 방침으로 삼고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성과이다.

브라더의 친환경 캠페인 'Brother Earth' 소개



브라더는 'Brother Earth'라는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 브라더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식수(植樹)사업 외에도,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포장 단계부터 자원의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친환경 철학이 반영되고 있다. 브라더는 'At your side'를 기업 모토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는 사회를 위해 기업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책임을 인식하고 친환경 의식이 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자료에 대한 문의

커뮤니케이션 웨이브 / 정은경 팀장 (3672-6596 / 010-2790-3607, lifelife@commwave.co.kr)

커뮤니케이션 웨이브 / 이영미 차장 (3672-6597 / 010-7292-0287, erica@commwave.co.kr)